

# 민천주보

제2659호

2021년 2월 28일 | 사순 제2주일

발행 천주교 인천교구 발행인 정신철 편집 천주교 인천교구 홍보실  
주소 22573 인천광역시 동구 박문로 1 이메일 hongbo@caincheon.or.kr



우리 본당 보물 찾기 <연안 성당>

<예수님 상>, 2400cmx900cm, <천사 상>, 2000cmx500cm, 1984 설치

## 가경자 최양업 토마스 신부의 시복을 위한 기원 미사

입당송 | 시편 27(26), 8.9 참조

주님, 당신 얼굴을 찾으라 하신 주님을 생각하며, 제가 당신 얼굴을 찾고 있나이다. 당신 얼굴 제게서 감추지 마소서.

제1독서 | 창세 22,1-2.9.10-13.15-18

화답송 | 시편 116(114-115), 10과 15.16-17.18-19.7.㉔(㉑)

◎ 나는 주님 앞에서 걸어가리라. 살아 있는 이들의 땅에서 걸으리라.

○ “나 참으로 비참하구나.” 되뇌면서도 나는 믿었네. 주님께 성실한 이들의 죽음이, 주님 눈에는 참으로 소중한네. ◎

○ 아, 주님, 저는 당신의 종. 저는 당신의 종, 당신 여종의 아들. 당신이 제 사슬을 풀어 주셨나이다. 당신께 감사 제물 바치며, 주님 이름 부르나이다. ◎

○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주님께 나의 서원 채우리라. 주님의 집 앞뜰에서, 예루살렘아, 네 한가운데에서. ◎

제2독서 | 로마 8,31-34

복음 환호송 |

◎ 길ियो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님, 찬미받으소서.

○ 빛나는 구름 속에서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왔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

복음 | 마르 9,2-10

영성체송 | 마태 17,5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금주의  
독색  
순교

미니멀리즘: 비우는 삶 - 물건을 정리하고 재활용 가게에 기부하기

## 고통도 영광이 된다고?!

예수님의 고통을 묵상하는 사순 시기가 시작된 첫 주, 성령은 예수님을 홀로 광야로 보냈습니다 (지난 사순1주). 이 광야에서 마주했던 예수님 고통의 힘겨움은 누가 때리거나, 아프게 하거나, 힘들게 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 '홀로' 마주했던 40일 동안의 고통은 다름 아닌, 예수님이 지닌 인간적인 마음과 그 욕망, 사람으로 살기에 가장 필요한 것들에 대한 '일상의 유혹'이었습니다.

사람이 홀로 살며 아무것도 갖지 못했을 때의 공허함과 아무도 만나지 못했을 때의 외로움, 그렇게 한 인간이 마주할 수 있는 가장 처절한 곳, '광야'.

그때 예수님은 하느님을 기억했습니다. 그렇게 광야에서 하느님을 기억할 수 있었던 은총으로 유혹을 이겨낸 뒤 그분이 맞이한 오늘의 '변모'(오늘 사순2주), "마전장이라도 그토록 하얗게 할 수 없을 만큼 새하얗게"(마르 9.3) 빛나실 수 있었던 하느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이 장면은 장차 그분의 십자가 고통이 인간적인 아픔이 아니라, 하느님과 함께 '빛나는 영광'이 될 수 있음을 뜻하는 중요한 대목입니다. 아픈 고통도 빛나는 영광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우리의 머리로는 한참을 생각해도 잘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조차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든 채, 갑자기 초막 셋을 짓겠다고 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루하루 하느님을 기억하며 사셨습니다.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광야에서조차 하느님이 익숙했으며, 하느님이 일상이 되었기에 고통조차 새하얗게 빛나는 영광이 될 수 있었고,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마르 9.7)이라는 아버지 하느님의 목소리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역시 익숙해진 평범한 것들 속에서 삼니

다. 우리가 살던 젊은 날, 가장 많이 생각나는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라 여겨 이제껏 가족으로 곁에서 지내고, 평생 동안 익숙해진 일을 '내 일'이라 정해 하루하루를 그 직업으로 살며, 또 그렇게 익숙해진 것들 가운데 잘못된 내 말과 행동들을 '죄'라 여겨 종종 아프게도 살아갑니다. 이 모두가 우리의 삶이지만, 그렇게 일상이 된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죄를 짓고, 내가 하게 된 평범한 일들 역시 피해 갈 수 없는 아픔이 되기도 합니다.

이 '일상의 유혹'이 고통이 됐을 때, 우리는 세상이라는 광야에서 다시 아픔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 순간, 하느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쉽지는 않겠지만 하느님이 가장 평범한 내 일상이 되어 주시길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일상의 삶이 고통으로 '버릇'됩니다. 그렇게 '버릇됨'이 '죄'인 줄 모르고 살면, 그것이 우리 인생 끝에 '후회'로 남습니다. 살면서 살다가 익숙해지고 남은 힘을 우리 삶에 잘못 쏟으면 후회가 됩니다. 일상에 굳어 있는 내 마음이 버릇이 되어 내 가족을 업신여기고, 내 곁의 일들을 소홀히 한다면 우리의 육신이 재가 되어 사라질 때, 아무에게도 좋은 추억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도 일상을 사는 동안 홀로되어 아프고 서운한 일이 참 많았습니다. 그분의 십자가를 보면 하느님의 아들인데도 참 아파 보입니다. 그 아들이 아버지 하느님을 기억하여 새하얀 변모를 이룬 오늘, 우리 역시 힘겨운 일상 안에서 하느님을 기억하여 '변화'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오늘의 '변모'는 바로 우리의 일상, 그 삶의 변화입니다.



최민섭 요셉 신부  
인천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 교수

## 소사본당의 설립과 정지용 시인

1945년 해방을 맞이하기까지 현재의 인천교구 지역에 있던 성당은 답동본당이 유일하였다. 해방 이후에야 비로소 또 다른 성당들이 설립되기 시작하였는데, 인천교구 지역에서 두 번째로 설립된 성당이 바로 소사본당(1946년)이다. 한편 소사본당의 설립 과정에서는 현대시 작품 〈향수(鄉愁)〉로 널리 알려진 정지용(鄭芝溶) 시인이 큰 역할을 담당하기도 했다.

현 시흥·부천 지역에는 본당은 없었지만 일찍부터 대골공소(1868년, 대야리)가 있어서 신자들은 이곳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 나갔다. 대골공소는 초기에는 서울 약현본당과 종현본당(현 명동성당) 관할이었으나, 답동본당에 드뇌 신부가 부임한 1904년부터는 답동본당 소속이 되었다. 이후 시흥·부천 지역에는 지속적으로 신자가 늘어나 새말공소(1908년, 신천리), 물왕리공소·포리공소(1922년), 방아다리공소(1933년) 등이 차례로 설립되었으며, 마침내 1938년 소사 읍내에도 대골공소에서 분리하여 ‘소사공소’를 설립하기에 이르렀다.

공소 신자들은 성금을 모아 소사삼거리 부근에 공소로 사용할 집을 마련하고 일 년에 두 차례 신부를 모셔와 미사를 올렸다. 1945년 8월 해방과 더불어 제2의 신앙의 자유를 얻게 되자, 소사공소 신자들은 더 열심한 신앙생활을 위해 일주일에 한번씩 신부를 모시자고 의견을 모으고, 이러한 내용을 서울교구 노기남 주교에게 청원하였는데, 이 일에 앞장을 선 사람이 바로 정지용 시인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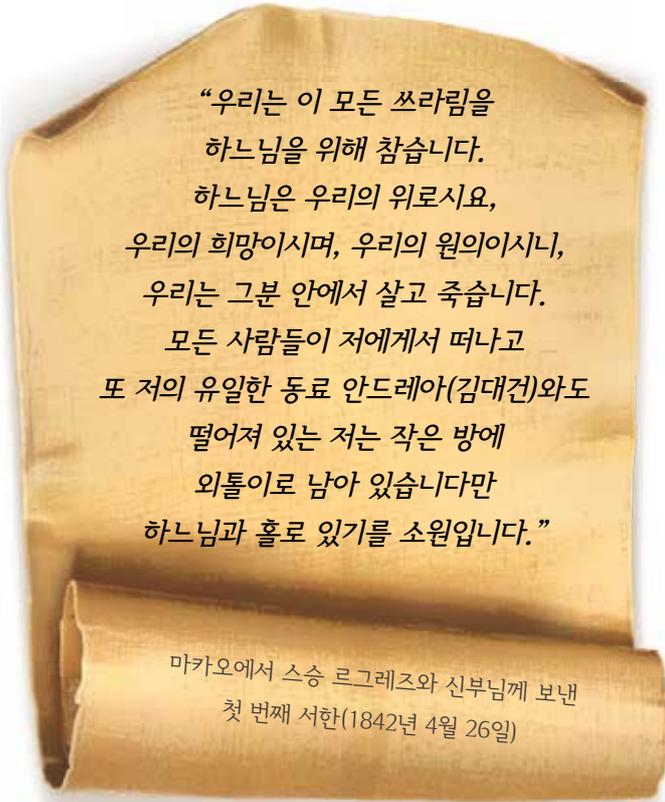
정지용은 본래 개신교 신자였으나, 일본 도시샤 대학(同志社大学)에서 유학 중이던 1928년 7월 22일 교토(京都)의 성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성당에서 세례를 받고 천주교로 개종하였다. 귀국 후

정지용은 종현본당 청년회 총무·회장을 맡기도 하고, 1937년 재속 프란치스코회에 입회하기도 하였으며, 1939년에는 조선천주교순교자현양회 간사를 맡기도 하는 등 천주교회에 깊이 몸을 던졌다. 특히 1933년에는 한국천주교 월간지 『가톨릭 청년』의 편찬위원을 맡아 왕성한 문학 활동을 보였는데, 이 시기 정지용은 자신의 세례명의 한자 표기인 ‘방제각(方濟各)’이라는 필명으로 사용할 정도로 천주교 신앙인으로서의 정체성이 강하였다.

해방 즈음한 시기에 정지용은 소사삼거리 은행나무 부근에 살면서 소사공소에 다녔는데, 앞서 언급한 여러 활동으로 인해 오래전부터 노기남 주교와 친분이 깊었던 까닭에 신자들의 사제 청원에 앞장서게 된 것이다. 이에 노기남 주교는 1945년 12월 성탄미사를 위해 24일에 임세빈(요셉) 신부를 임시로 파견해 주었다. 한편 신자들은 정지용이 중심이 되어 임세빈 신부가 떠나지 못하게 만류하며 본당 설립을 위해 도움을 요청하였다. 결국 노기남 주교, 답동본당 임종국 신부, 장면 박사 등의 협조를 이끌어내어 곧바로 공소 건물을 새로 짓고 1946년 4월 소사본당으로 승격되었다. 초대 주임은 임세빈 신부였다.

1961년 인천교구 설립 당시 소사본당은 서울교구에 속해 있었는데, 1963년 수원교구가 설립됨에 따라 수원교구에 편입되었다가, 1970년 교구 관할 구역 재조정으로 인해 인천교구로 이관되었다. 소사본당은 답동본당을 모본당으로 하여 설립된 시흥·부천 지역 최초이자 현 인천교구 관할 지역 기준 두 번째 본당으로 많은 자본당과 공소를 길러내는 역할을 담당해왔다.

# 땀의 증거자1 - '예수님을 향한 칠천 리'



“우리는 이 모든 쓰라림을  
하느님을 위해 참습니다.  
하느님은 우리의 위로시요,  
우리의 희망이시며, 우리의 원의이시니,  
우리는 그분 안에서 살고 죽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저에게서 떠나고  
또 저의 유일한 동료 안드레아(김대건)와도  
떨어져 있는 저는 작은 방에  
외톨이로 남아 있습니다만  
하느님과 홀로 있기를 소원입니다.”

마카오에서 스승 르그레즈와 신부님께 보낸  
첫 번째 서한(1842년 4월 26일)

최양업 토마스 신부님은 지금의 충청남도 청양군 화성면 농암리의 다락골에서 최경환(프란치스코) 성인과 복녀 이성례(마리아)가 낳은 6형제 중 맏아들로 1821년 3월 1일에 태어났습니다.

선대의 이름 있는 가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천주교에 입교하여 깊은 신앙과 교리를 실천하며 성가정을 이룬 부모님의 모범적인 삶과 신앙의 영향으로 신부님은 신앙을 키워나가며 성장합니다.

어린 시절 극심한 종교 박해를 피해 자주 이사를 해야 했지만 조금도 이를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전국의 신앙 공동체들을 순회하는 모방 신부에 의해 15세 소년 최양업은 1836년 초에 한국 천주교 첫 번째 신학생으로 선발됩니다.

같은 시기 신학생으로 선발된 최방제(프란치스코), 김대건(안드레아)과 함께 순명 서약 후 유학길에 올라, 얼어붙은 압록강을 건너고 중국 대륙을 관통하는 약 1만리나 되는 가혹한 여행(약 7개월 소요) 끝에 목적지인 마카오, 필리핀 마닐라 등지에서 신학교 과정을 밟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동료 최방제 신학생이 열병으로 1838년 11월 27일에 사망하였고, 기해박해로 부친 최경환(프란치스코)은 옥사로, 모친 이성례(마리아)는 참수로 하느님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교구 복음화사목국

## 그리스도교 상징 돋보기

### 13. 나무

그리스도교에서 나무는 중요한 상징이다. 하느님께서는 에덴동산에 먹기 좋은 온갖 나무를 자라게 하셨다. 동산 한 가운데 생명나무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자라게 하셨다.(창세 2.9)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인간의 불순종으로 죽음을 선사하는 나무가 되고 말았다. 하지만 예수님이 죽음으로 순종하여 십자가는 생명을 주는 나무로 잎을 피웠다.

전승에 의하면, 아담의 아들인 셋이 세 나무를 심어 자라난 나무가 하나로 합쳐져 예수께서 매달린 십자가가 되었다고 한다. 동산의 나무는 죄의 잉태의 원인이기에 죄의 극복으로써 십자가와 결

부대 예수님이 달린 '십자가 나무'로 묘사되곤 한다. 새로운 생명나무인 '십자가 나무'는 죄와 구원, 죽음과 삶의 관계로 은유되어 나타난다. 시든 나무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우거진 나무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상징한다. 또한 중세 미술에서는 다윗 왕의 아버지인 이사이에서 예수님으로 이어지는 다윗 가문의 족보를 나무로 많이 표현했다.(마태 1.6 참조)



〈생명나무〉, 1481년, 찰스버그 대주교의 미사 경본

윤인복 소화 테레사 교수 · 인천가톨릭대학교 그리스도교미술학과

### 코로나19대응 특별위원회 공동선 캠페인



· 선학동 성당 소상공인 응원 캠페인



· 부평2동 성당 소상공인 응원 캠페인



· 사랑의 쌀 나눔 캠페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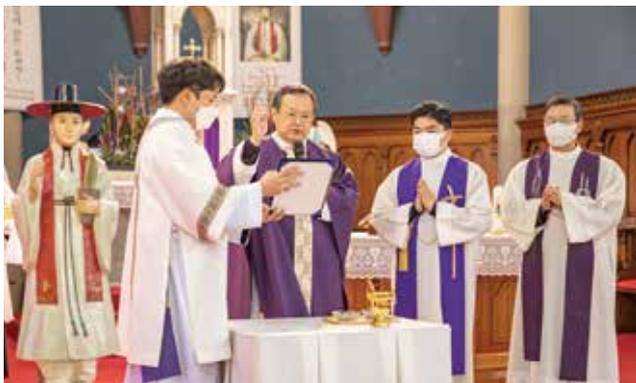
코로나19대응 특별위원회(=위원장 총대리 이용권 베드로 신부)는 본당과 연계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응원하는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지난 3일(수) 선학동 성당, 선학동 상인연합회, 연수구 시민단체와 연대하여 주변 200개 상가에 방역용품과 커피쿠폰을 전달하며 상인들을 응원하고 주민들에게 골목상권 지키기를 홍보하였다. 9일(화) 부평2동 성당은 부평제일신협과 인천성모병원에서 물품을 후원받아 주변 100개 상점에 신자들이 직접 포장한 방역용품과 커피를 전달하였다. 응원 선물을 받은 소상공인들은 “월세 내기도 어려운 소상공인이 많은데 이렇게 찾아주고 응원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인사를 전하였다. 또한 특별위원회는 4일(목) 설을 맞아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들에게 쌀 1,000kg과 김 100세트를 지원하였다. 실직자 지원을 위한 생필품 전달식에는 교구장 정신철 요한 세례자 주교가 참석하여 격려하였고, 준비된 생필품은 인천국제공항 업무 종로가 예고된 카드노동자, 코로나19로 강의를 나가지 못하는 다문화지도사, 해고 농성중인 노동자에게 전달하였다.

한편, 특별위원회는 사순 기간 ‘착한 사마리아인 실천’ 후원을 모집하여 소상공인과 실직자를 위한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 후원계좌: 우리 1005-704 050447 (재)인천교구천주교회유지재단
- 방역용품 후원: 1만원 / 사랑의 쌀 후원: 3만원 (교구 정의평화위원회 032-765-6970)

### 교구 행사

#### 재의 수요일 미사



17일(수) 답동 주교좌 성당에서 교구장 정신철 요한 세례자 주교의 집전으로 재의 수요일 미사가 봉헌되었다. 강론에서 정신철 주교는 사순 담화문을 낭독하면서 “가경자 최양업 신부의 신앙을 기억하고, 사순시기 매일 미사 전 가경자 최양업 신부의 편지를 읽고 들으며 선조들의 신앙을 기억하자”고 전하였다. 또한 “우리의 편리함이 초래하는 많은 환경적 문제들을 더 이상 간과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고 있다”며 “환경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플라스틱 쓰레기의 사용을 줄이고, 에너지를 아끼자”고 녹색 순교를 실천할 것을 강조하였다. 미사 중 재를 신자들의 이마에 얹는 예식을 통해 ‘너는 먼지이니, 먼지로 돌아갈 것을 생각하여라’라는 말씀을 깊이 새겼다.

### 교구 안내

#### 교구 설정 60주년 기념 영상 [3월]



교구 달력에 게재된 QR코드를 통해 교구 설정 60주년 기념 영상을 소개합니다. 3월 영상은 교구 소속 학교 사진으로 구성되었습니다.

### 교구 안내

#### 교구 이주사목위원회 위원 추가 임명

- 사제 위원: 정광웅 신부
- 평신도 위원: 심정순 수녀, 배영경 수녀

### 교구 안내

#### 단체 지도신부 임명

단체명	지도신부
재단법인 마텔암재단 강화 쉼터	안지헌

### 교구 안내

#### 사제 인사 발령

02.15.

성명	계시던 곳	가시는 곳
박준경	안식년	휴양

## 교리교육을 위한 협력

교리교육은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의 특별한 책임에서 오는 교육 활동입니다

(교리교육 총지침 220항).

청소년사목국은 영유아부터 청장년에 이르는 긴 세대의 교리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릴 적 혹은 신앙 입문 당시 다져진 신앙의 습관과 신앙의 내용은 신앙을 실천하며 평생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의 교리교육이 잘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런 중요한 시점에 있는 아동, 청소년, 청년들에게 제공되어야 할 교리교육 자료는 양과 질의 문제를 차치하더라도, 개발 기준부터 개발 및 활용까지 교회의 가르침과 동일해야 하고, 교육적이며, 시대에 적합해야 하지만 현재 그렇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청소년사목국은 이러한 현재의 교리교육 상황을 인식하며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이 모든 것을 청소년사목국의 역량만으로 달성하기에는 부족함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부족함과 어려움을 극복하고, 보다 나은 교리

교육 자료를 개발하고 보급하고자 하는 청소년사목국의 노력에 하느님께서 주신 재능과 경험을 나눠주실 수 있는 교우분을 찾아 모시고 싶습니다.

교회를 향한 신앙 열정과 신앙 안에서 하느님과 함께 성취한 다양한 지식과 경험과 관심을 한 곳으로 모아 후배 신앙인을 양성하는데 좋은 도구로 함께 쓰이기를 희망합니다.

선배 신앙인인 우리가 후배 신앙인을 잘 양성하여, 교회가 다시 젊어지도록 가득 차고 활기 넘칠 수 있도록 도움이 될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겠습니다.

- 학부모님, 교육 관련(전/현직 초중고 교사, 교수), 교리교사, 디자인, 편집, 영상, 홍보, 웹 구성 등 교리교육과 연관되며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들
- 문의: 청소년사목국 032-765-6964

김용수 마태오 신부 · 청소년사목국 교리교육부국장

### 교구 안내

#### 2021년 인천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 입학생(인천교구)

성명	세례명	출신본당	성명	세례명	출신본당
허종환	베드로	해안	심재호	스테파노	불로동
이태민	마르티노	검암동	서우석	레오	중1동
전재혁	라파엘	옥련동	고범수	이레네오	소래포구
박의진	프란치스코	간석2동	서환	도미니코 사비오	간석2동
송인범	스테파노	주안5동			

신입생들을 위해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교구청 알림

◆ 교구청 사제관 주방직원 채용

제출서류: 본당신부 추천서, 이력서, 교적사본  
 마감: 3/12(금) / 제출처: 관리국  
 ☎ 032-765-6975, 6982

◆ 새반장학교

때: 3/4, 11, 18, 25  
 곳: 교구청 보니파시오 대강당  
 ☎ 북음화사목국 032-765-6962

◆ 성삼일 전례교육

때: 3/20(토) 13:00  
 곳: 교구청 보니파시오 대강당  
 ☎ 북음화사목국 032-765-6962

◆ 수도자 성체분배 교육

때: 3/17(수) 13:00  
 곳: 교구청 복자 이안나 홀  
 ☎ 북음화사목국 032-765-6962

교육 | 피정

◆ 성심수녀회 예수마음배움터 피정 및 교육

예수마음기도 [2박 3일] 3/5~7  
 이나시오 영신수련 [2박 3일] 3/5~7  
 시니어 하루 피정 3/4 10:00~15:00  
 내적여정에니어그램(심화) 3/13~14  
 성경대학 봄 강좌 3/11~5/20  
 매주(목) 13:00~15:00 [총 10주]  
 '찬미받으소서'를 사는 일상 봄 강좌  
 3/16~5/18 매주(화) 14:00~16:00  
 ☎ 031-946-2337 / www.jesumaum.org

◆ 다시 배우는 교리(신자 재교육)

대면: 3/15~6/21 매주(월) 10:00~12:00  
 비대면: 3/17~6/23 매주(수) 19:00~21:00  
 곳: 노들담 서울교육관 / 마감: 3/8(월)  
 ☎ 노들담 교리학교 010-6300-6318

◆ 신·구약 성경 완독피정

때: 3/12(금)~20(토) [8박 9일]  
 곳: 횡성 도미니코 피정의 집  
 ☎ 010-3340-0201

◆ 효소단식 성체신심 치유피정

영성과 디톡스로 자연치유력 회복  
 곳: 성 도미니코수도원(수유동)  
 때: 3/12~15, 26~29, 4/23~26,  
 5/14~17, 28~31 / 36만원(효소비 포함)  
 ☎ 노경덕 신부 010-9916-5798

미사 | 행사

◆ 민족화해위원회 분과장차장 모임

때·곳: 3/8(월) 19:00 부평2동 성당

◆ 교구 전례꽃꽂이회 월례미사

때·곳: 3/4(목) 14:00 박순집 베드로 홀  
 ☎ 010-2311-1306

모집 | 일반

◆ 은행동 성당 청년 성가대 유급 반주자 모집

반주시간: 주일 17:00 미사 전후  
 자격: 전공자, 성실한 사람  
 제출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접수 및 문의: ehd20101024@gmail.com  
 지원마감: 채용 시까지

◆ 성심중학교(야간) 신입생 및 교사 모집

21학년도 신입생 36기 30명  
 (2년제, 학비무료, 학습교재 제공)  
 교사: 한문(자원봉사)  
 곳: 부평4동 성당 교육관  
 ☎ 교장 010-7335-7657

◆ 한길고등학교(야간) 학생 및 교사 모집

21학년도 34기 신입생 20명  
 (2년제, 학비무료, 학습교재 제공)  
 교사: 영어, 수학 각 1명(자원봉사)  
 곳: 주안5동 성당 ☎ 교감 010-8165-7532

◆ 천주교 서울대교구 카프성모병원

중독 중점치료(알코올, 마약, 도박, 인터넷 게임 등),  
 우울, 불안, 수면 장애 등 정신의학과 진료  
 때: (월~금) 9:00~17:00  
 야간진료 (화) 18:00~20:30  
 곳: 고양시 일산 동구 백석역 7번 출구 5분 거리  
 ☎ 031-810-9200 / www.karf.co.kr

◆ 호스피스 완화의료 안내

입원형/가정형/외래자문형  
 대상: 말기암 환자 등 호스피스 대상자  
 담당: 인천성모병원 호스피스완화의료센터  
 ☎ 032-280-6205

◆ 글라췌 선교수도회 심리상담

불안, 우울, 성격, 대인관계 어려움, 가족관계,  
 직장 및 학교 부적응, 이주민 자녀진로상담  
 대상: 개인, 부부, 가족, 청소년  
 곳: 부천시 심곡본동 608-7  
 상담료: 1회~5천원 ☎ 010-7794-6031

◆ 미술심리지도사 모집

가톨릭대 평생교육원 (비대면 강의)  
 강의: 2급-3/15~5/24, 매주(월)  
 1급-3/15~6/14, 매주(월)  
 강좌: 미술심리지도사 2급(1~3단계)-각 30만원  
 (3단계: 40만원), 미술심리지도사 1급-60만원  
 ☎ 02-2164-6587

순례 | 기타

◆ 제주도 성지순례

때: 3/14(주일)~16(화), 3/21(주일)~23(화)  
 사제동행, 미사 봉헌, 프리미엄 방역  
 2인-1실, 일급 호텔, 아시아나  
 ☎ 이진영 라파엘 032-666-9385

성소모임

◆ 성골롬반외방선교회

때·곳: 3/7(주일) 9:30 서울 돈암동 본부  
 문의: korvocation@columban.or.kr

후원 안내

◆ '하느님의 종' 이승훈 베드로 성지 조성 후원

내용	인원	금액
추모의 벽	1인당	1,000,000
기도의 벽		
1구좌	1인당	500,000

혜택: 한 달에 한번 10년간 미사 봉헌  
 ☎ 성지개발 위원회 032-765-6916